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85돐 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영웅적조선인민군 창건 85돐 경축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를 보시였다.

오전 10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전선동부비행장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조선인민군 포병국장인 박정천 특군상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창건 85돐 경축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렬한 조선인민군 해군,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군인들과 조선인민군 전선최정예포병무력을 사열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는 인민군장병들은 회세의 천출위인들이 높이 모시고 가장 빛나는 위훈의 역사를 창조하여온 조선인민군의 전투적행로를 긍지높이 돌이켜보면서 원수님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일격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을 격멸소탕하고 단숨에 남조선을 깔고 앉아 평정해버릴 전투적열망으로 심장을 펄펄 끓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선 집단의 최정예포병부대들이 화력진지에로 기동을 시작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여 조선인민군 군종합동타격시위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시고 군종합동타격시위를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잠수함들이 신속히 침하하여 《적》함



선들에 강력한 어뢰공격을 들이대였고 초저공으로 바다우를 스칠듯이 날으며 목표상공에 진입한 추격기, 습격기, 폭격기들에서 멀적의 폭탄들이 불소나기마냥 쏟아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목표들을 타격하는 장쾌한 광경을 보시면서 명중이라고, 백발백중이라고, 우리 잠수함해병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정말 잘 싸운다고 치하시였다.

이어 수km의 해안가에 즐비하게 늘어선 300여문의 대구경자행포들이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영웅한 포병들이 목표들을 사정없이 두들겨댄다고, 가

슴이 후련하게 정말 잘 쏜다고, 타격이 매우 정확하다고 하시면서 적대세력들에게는 오직 무자비한 징벌로 대답하는 우리 일당백포병무력의 불의 세례가 어떤것인가를 잘 보여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창건 85돐 경축 군종합동타격시위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건군절 85돐에 전례없는 규모로 성대히 진행된 군종합동타격시위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백두산혁명강군

의 최대의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이라고 하시면서 군종합동타격시위가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세상에 나라도 많고 군대도 많지만 우리 인민군대처럼 력사의 모진 풍파속에서도 혁명의 개척기에 추켜든 붉은기를 자그마한 변색도 없이 높이 들고 장구한 전로정을 백전백승으로 수놓아온 혁명군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시면서 남들은 상상할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조선인민군의 불굴의 정신력과 최강의 전투력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자랑스러운 결실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두자루의 권총으로 자기의 첫걸음을 떼고 장장 85성상 승리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혁명무력이 오늘 최첨단공격수단들을 다 갖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장성강화되고 조국수호와 부강조국건설의 최전방에서 혁명적당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고 하시면서 건군절을 맞이한 전체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사회주의조국은 금성철벽이며 이 땅우에 최후승리의 새 아침이 찬연히 밝아오게 될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횡이 판무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오직 자위의 강한 힘만이 국가발전과 번영의 담보로 되고 있다. 오늘날 최강의 전쟁역 제력을 갖추고 동방의 강력한 사회주의보루로, 평화의 믿음직한 수호자로 된 조선의 지위가 그것을 확증하고 있다. 지난 15일 진행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탄생 105돐경축 열병식을 본 로씨야의 사회계 인사인 드미트리 프스첸코는 《위풍당당한 열병식을 보면서 조선의 무진막강한 군사력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 그러면 전쟁방식에도 다 상대할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첨단군사기술을 소유한 조선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라고 감탄을 더놓았다.

어제날 힘이 약해 외세에게 나라를 송두리채 빼앗겨야 했던 조선민족이 지금은 동방의 핵강국, 자주강국의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었다.

조선반도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대륙과 잇닿아있고 바다는 태평양과 편적되어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놓여있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 강 대 한 자 위 의 힘

렬강들의 세력권쟁탈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려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오늘은 당당한 정치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인민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민으로 존엄떨치고있다고 하시었다.

지금도 우리 민족은 외세의 리권다툼의 희생물이 되었던 지난날을 잊지 않고있다. 조선에 대한 지배를 둘러싸고 벌어진 청일전쟁과 로일전쟁, 1905년에 조작된 《가쓰라-라프트협정》과 1927년에 나온 《다나카상수서》에서 보는바와같이 지난날의 우리 강도는 려강들의 각축전마당이였다. 일제의 압제하에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간 조선민족은 만주광야에 백설처럼 흩날리었고 원동의 어촌마을과 중앙아시아의 황무지에도 모래알처럼

뿌러지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징용과 징병으로 일본땅에 끌려가 생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황제의 아버지가 외국에 랑치되어 귀양살이를 해도 오히려 사죄를 하여야 하였던 조선민족이였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가슴을 쥐어뜯어도 보고 국제회의장에서 배를 가르면서까지 항거하여나섰지만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강요당한 수난의 려사는 지정학적 위치로부터 차례지는 피할수 없는 운명처럼 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공리처럼 되어난 지정학적수명론에 우리 민족은 중지부를 찍었다.

조선인민은 일제를 쳐부시고 조국해방의 려사적위업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100여차의 침략전쟁들에서 패한적이 없다는 미국을 서산락일의 운명에 몰아넣고 위대한 전승신화를 창조하였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과의 장기간의 대결전에서 련전패승의 빛나는 려사와

전통을 창조하며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여왔다.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우리 민족의 운명에서 일어난 극적인 전환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위업을 계승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공화국은 자주권수호와 평화보장의 실제적인 힘을 가진 핵강국이 되었다.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두해전 8월 적대세력이 몰아오는 전쟁이라는 재앙의 난파도속에서 나라의 안전과 존엄, 세계평화를 굳건히 수호한것은 공화국의 강력 한 군사적합과 일심단결이 안아온 자랑찬 쾌승이다.

민족의 천만년 미래를 내다 보시며 탁월한 병진로선을 제시하시고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완성과 군력강화에 모든것을 바쳐오신 천출명장이 계시

어 적대세력의 핵전쟁도발책동과 침략야망은 물거품이 되고 나라의 존엄과 위력은 만방에 더욱 떨쳐지게 되었다. 그의 지도밑에 진행된 《북극성》탄도탄시험발사와 새형의 대출력발동기지상분출시험, 전락군 화성포병부대들의 탄도 로켓발사훈련과 땅크병경기대회, 특수작전부대 강하 및 대상물타격경기대회 등은 무진막강한 인민군대의 위력에 대한 과시였다.

미국이 원자탄으로 조선인민을 위협하던 시대는 영영 지나갔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다.

일본의 한 시사론평가는 《핵보유이전의 조선에 대하여서도 감히 군사적공격을 하지 못하였던 미국이 핵보유국이 된 조선에 싸움을 건다는것은 자멸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평하였고 미국의 정치평론가 스티븐 고완즈는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고있는것은 북조선이 전쟁역제력을 부단히 강화하

였기때문이다.》라고 분석하였다.

미국은 지금도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조선반도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투입하여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전쟁국면을 조성하고있다.

호전적이며 모험적인 적대세력의 침략기도에 대비하여 실전배비된 공화국의 모든 타격수단들은 미국본토를 비롯한 침략의 본거지들을 조준경안에 잡아넣고있으며 발사대기태세에 있다.

공화국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령토와 령해, 령공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위력한 주체란, 주체무기들이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을 생존불가능하게 모조리 초도화해버릴것이라는 공화국의 경고는 빈말이 아니다.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모시어 공화국은 무한대한 자위의 힘으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책들을 단호히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의 래일을 향하여 총매진하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 다 면 박 식 하 신 위 인

국가지도자의 권위는 직위나 년한이 아니라 실력과 지도력에 따른다. 특출한 품모와 자질을 지닌 지도자는 인민들의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위인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기적적성과들과 승리를 안아오신 고귀한 업적의 기초에는 철학하고 정치경제학으로부터 첨단과학 기술지식에 이르기까지, 민족의 유구한 려사와 풍습으로부터 건축과 산업미술, 음악과 체육의 세계적 인 발전추세에 이르기까지 환히 꿰뚫고 모든 문제들에 명철한 해답을 주신 령도실력이 놓여있다.

그이께서 복잡다단한 세계정치정세의 추이를 환히 통찰하시고 조선반도의 지정학적특징을 새롭게 밝히신것과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탁월한 령군술과 불멸의 업적에 대한 문본을 집

필하시어 사람들을 경탄케 하신것은 사상리론적예지의 비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들이다.

오늘 공화국이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예술, 보건과 체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룩하고 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은 문무를 겸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특출한 정치실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리론을 계승하고 심화발전시키 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장 숭고한 인민관으로 일관되고 백과전서적이며 시대성이 맥박치는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어 우리 민족과 세계진보적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셨고 신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조선로동당의 최고강령을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로 선포하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주석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연단에

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대한 고전적명제를 제시하시고 자주,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나아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 있고 종국적승리가 있다고 천명하시었다.

그이의 빛나는 예지와 과학적식견, 담력과 배짱으로 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자위의 핵강국, 자력의 위성강국으로 솟아올랐다.

특히 지난 3월 공화국에서 개발된 대출력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의 성공은 국방과학기술자들과 함께 무수한 낮과 밤을 보내시며 비범한 과학적통찰력으로 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력적인 령도의 나날에 이루어진 빛나는 결실이다.

농산, 축산, 수산은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수 있는 실천적인 방도들을 제시해주시고 멋쟁이 조선식건축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도록 하

시어 인민생활향상과 문명강국건설에서 새로운 비약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체육분야에서 일어난 기적적성과들과 만화영화제작에서의 새로운 경지개척을 비롯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는 공화국의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창조와 변혁을 안아오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연설모습만 봐도 언어적사고력이 매우 높다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여기에 현대과학기술과 예술, 체육에도 조예가 깊으시다.》고 하였고 세계언론들은 《누구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예지와 지략을 지닌 군사적 영재》, 《현대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 《젊은시면서도 능력이있는 김정은지도자》라고 격찬하고있다.

다면박식하신 회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모시어 공화국은 세기를 주름잡고 분초를 앞당기며 사회주의강국의 령명을 맞이하고있는것이다.

손송죽

## 단상 아이들의 눈에 비친 세상

며칠전 나는 평양시 서성구역에 살고있는 한 중학동창생의 집을 찾아 회포를 나누었다. 그날 그의 안해에게서 들은 한가지 이야기만은 지금도 나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그날은 유치원에 다니던 그 집 아들이 소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였다고 한다.

온 나라의 축복속에 배움의 꽃대문에 들어선 아이들은 해빛밝은 교실에서 첫 수업을 받았다. 수업이 마치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앞으로 크면 무엇이 되겠는가고 물었다. 아이들은 뒤질세라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누구는 박사가 되겠다고 했고 누구는 영화배우가 되겠다고 했다. 크면 왕벌을 단 장령이 되겠다고 대답하는 아이도 있었다. 학부형들도 그때마다 박수를 치면서 자기 아이들을 대견해했다.

그런데 동창생의 아들은 자기는 크면 로동자가 되겠다고 대답하였다는것이다. 선생님이 왜 로동자가 되려는가고 다시 묻자 그는 자기 아버지가 언제나 《우리 세상은 로동자들의 세상이야.》하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는것이

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들애의 마음속에는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가 제일 세고 제일 훌륭하다는 생각이 자리잡게 되었으며 커서 꼭 로동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것이다.

그 자리에 있던 학부형들도, 그 말을 전해들은 나로도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얼마나 우리 나라에서 로동자들이 존대받고 온갖 복을 누리고있으면 7살 난 아이들의 마음속에까지 로동자의 모습이 그려지게 되었으랴.

사실은 그랬다. 세상에는 나라가 많지만 로동자들을 제일로 위해주고 행복의 꽃방석우에 앉혀주는 나라는 오직 우리 공화국뿐이다. 국가가 로동자들을 위하여 베푸는 혜택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구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만아들로 믿어주시고 내세워주시는 사람들이 바로 로동자들이다. 공장들을 현지도하실 때에도 그이께서는 로동자들의 기쁨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로동자들과 기념사진도 찍어

주신다. 현대적인 새 거리가 일떠졌을 때에는 로동자들에게 행복의 보금자리가 차례지도록 하고 새집들이하는 날에는 새간난 자식을 돌보는 친부모의 심정으로 방직공장 직포공의 집을 찾으시어 축배잔도 부어주시었다.

최근에는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 호텔도 부럽지 않게 로동자합숙을 세워주시고 가구와 침구류, 난방설비는 물론 녀성로동자들의 기호에 맞게 경대까지 갖추어 주도록 하시어 사람들은 누구나 우리 세상은 로동자들의 세상이라고 꾸밈없이 말할수 있다.

로동자들의 세상. 세상에서 제일 힘있게 일하면서도 천대받고 어렵게 사는것이 로동자들의 신세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로동자들이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혜택속에 살고있으니 정녕 로동자들을 위한 세상, 인민을 위하는 참세상이 우리 공화국이다.

하기에 천진한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에도 로동자가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모습으로 비끼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고성호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2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실태를 알아보시었다.

당시 평안남도의 육아원, 애육원에 신체가 허약한 원아들이 있다는것을 아신 그이께서는 그애들을 즉시 군대병원인 대성산 종합병원에 입원시켜 보양시키도록 할데 대하여 인민군대에 지시하시었다. 하여 나 어린 원아들이 군대병원에서 보양도 하고 치료도 받게 되었다.

그해 5월 어느날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대성산종합병원을 현지 지도하시었다. 그곳에서 입원생활을 하고있는 애육원 원아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혈색도 좋고 영양상태도 좋다고, 하나같이 보통보통한것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몇살이나, 밥은 잘 먹었느냐, 무엇을 하며 놀고있느냐 다정히 물으시었다.

그이의 물으심에 아이들은 TV방송에서 아버지 원수님을 뵈웠다고, 노래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불렀다고 담차게 대답드리였다. 그리고는 저마끔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올리였다.

이 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육아원 원아들이 있는 입원실에도

들리시었다. 아직은 말을 제대로 번지지 못하는 원아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한명한명 원아들을 안아주시었다. 이어 보육원, 간호원들이 안고있는 아이들을 보신 그이께서는 그애들의 불을 어루만져주시며 병원에 입원하기

전 애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한시름 놓인다고 하시었다.

그리고 몸무게관찰표를 유심히 보신 그이께서는 아이들의 몸상태가 나이에 맞게 정상상태에 이르렀다고, 3개월사이에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럴수록 마음을 놓지 말고 더 잘 돌봐주

라고 이르시었다. 그러시면서 원아들이 퇴원후에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무럭무럭 자라도록 하자면 육아원과 애육원의 보육원, 교양원들이 그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잘하여야 한다고, 당의 품속에서는 허약한 아이들이 단 한명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었다.

그곳을 떠나시기에 앞서 그이께서는 오늘 대성산종합병원에 찾아와 몸이 튼튼해진 원아들을 보니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친부모의 심정으로 온갖 지성을 다하여 아이들을 보양한 병원의 군의, 간호원들의 수고를 헤아려주시었다.

본사기자



# 우리 세상은 인민의 참 세상입니다

아버 이수령님 탄생 105돐을 맞으며 우리 조국에서는 려명거리준공식이 성대히 진행되고 수천세대의 새집들이경사가 펼쳐져 지금 온 나라를 기쁨과 환희로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고통압살하려던 적대세력들의 눈이 뒤집히게 구름에 닿을듯 치솟은 70층 초고층 아파트며 금수산태양궁전 가까이에 낮으면서도 특색있게 건설된 다층살림집들, 녹색형, 에네르기절약형 리상거리와 푸른 잔디, 갖가지 꽃송이들, 가로수들이 청신한 기운을 더해주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모습...

그 희한한 광경을 보면 볼수록 인민들에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든것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세계가 어려와 눈시를 젖어듭니다.

\* \*  
 예로부터 집은 삶의 보금자리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정신과 심신이 가장 안정되고 편한곳, 인간에게 행복의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며 따뜻한 보살핌과 나눔과 정진은 배려가 깃드는 곳, 피와 살을 나눈 가족이 품담고 사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그래서 이 아늑한 공간을 일컬어 《천국》이라 부른 사람들도 있었고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도 생겨난것 같습니다.

집은 인간생활의 따뜻한 보금자리이지만 세상에는 집없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미국의 어느 한 도시에서는 매일밤 수천명의 집없는 사람들이 거리와 골목, 다리과 지하철도에서 잠을 청하고있고 한칸짜리 살림방을 마련하고자 해도 일반로동자가 100여년 동안이나 저축해야 가능하다고 하니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대중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한지맥을 잇고있는 저 남쪽에서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인구의 근 절반에 달하고있고 《내 집마련》의 소원은 평생을 일해도 이루기 어려운 꿈으로 되고있습니다.

그 숨막히는 사회에서 오래동안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저역시 따뜻한 집생활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남조선

에 있을 때 사람들은 저희들을 가리켜 《떡방인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평도 안되는 좁은 독감방은 햇빛 한점 스며들지 않았고 겨울이면 뼈속까지 얼어붙고 여름이면 온몸이 물주머니로 되는 그런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리깊은 손길에 받들려 꿈결에도 그리던 조국의 품에 안기고 궁궐같은 새 집까지 받아안게 될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덩실한 새집을 받아안았을 때 이제 정말 내 집인가 하여 오래동안 쓸어보고 또 쓸어보았습니다. 미구한 여생을 담을 삶의 보금자리를 그토록 정성들여 마련해준 장군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와 백발을 떠이고서도 아이들처럼 눈물을 펄펄 쏟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희한한 려명거리가 완공되어 근로하는 인민들이 입사하는 경사가 펼쳐지고있으니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정말 우리 세상은 인민을 위한 참세상이라는 생각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려명거리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축도입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거리들이 많아요 인민을 위한, 인민이 사는 거리가 없습니다. 대기업 본사들과 은행, 정부청사, 특권층의 거리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려명거리는 웅근 하나의 거리가 인민들이 살게 될거리로 되어있습니다. 살림집들의 주인도 평범한 교육자, 사무원, 로동자들이고 식당, 상점을 비롯한 각종 봉사시설들에서 앞으로 문명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려갈 주인들도 인민들입니다.

인민을 위해 이처럼 웅근 하나의 새 거리를 일떠세워주고 단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집을 안겨주는 그런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더우기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소동이 극도에 달하고 나라가 한푼의 자금과 자재도 귀한 때에 인민의 새 집, 인민의 새 거리를 일떠세워주었으니 정말이지 로동당의 정책, 우리 원수님의 정치가 제일입니다.

꽃피는 4월, 민족최대의 명절 태양절을 맞으며 려명거리가 보란듯이 일떠서고 인민들이 새집들이하게 된 경사를

보게 되니 일찌기 나라없어 천대받고 멸시받던 우리 겨레에게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인민이 주인된 새 세상을 일떠세워주신 아버 이수령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집도 제집이고 공장과 농장도 자기 공장, 자기 농장이며 병원과 학교도 자기들을 위한 병원, 학교인 그런 세상에서 살고있습니다. 모든것의 주인이 인민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국가의 모든 정책도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데로 지향되고있습니다. 세계도처에서는 분쟁과 내란으로 화염이 그칠새 없고 피난민행렬은 대륙과 대륙으로 이어지며 세계적인 난문제, 인류의 대재난으로 되고있지만 우리 인민은 전쟁도, 불안도 모르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누려가고있습니다.

인민이 안겨사는 이 행복의 집, 사회주의의 큰 집을 동방의 일각에 우뚝 세워주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였습니다.

아버 이수령님께서 해방후 삼등면을 찾으시여 오랜 머슴군이었던 한 농민의 이름 석자를 손수 패말에 써서 지주가 살던 기와집대문에 달아주시던 감동깊은 이야기는 오늘도 전설처럼 전해지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인민의 이름이 적힌 그런 문패를 온 나라 모든곳, 어디에나 다 달아주셨을니다. 궁전에 써서 소년궁전, 인민문화궁전, 병원도 인민병원, 명예칭호도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모든것이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고있습니다. 인민을 위하지 않는 그런것은 이 땅 어디에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이 나라가 통채로 인민의 큰 락원이고 정권이 그대로 인민의 주권이며 흘러가는 로동당세월이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커가는 달과 해의 바깥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늙은이들도 《세월이야 가보라지》하며 어깨춤 들썩 노래 부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 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행복의 집, 사회주의를 지켜주시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동해의 명승지에서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낼 때에도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철령을 넘으시였고 오성산의 가파로운 산길을 헤쳐가시였습니다.

장군님의 선군총대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인민의 행복이 날로 더욱 꽃피는 오늘의 사회주의조국도 없고 자주와 정의의 빛을 뿌리는 동방의 핵강국이 솟아날수도 없었습니다.

하기에 날로 커가는 행복의 창조물들을 대할 때마다 수령님이 생각나고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하여 눈물로 가슴적시는 이 나라 인민들입니다.

아버 이수령님의 이민위천의 력사,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자욱을 이어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성스러운 길을 헤쳐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태양이 우리 원수님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지난 5년간 당과 국가사업을 령도해오시면서 인민을 위한 행복의 창조물들을 얼마나 많이 일떠세워주시었습니까. 미처 그 이름을 다 꼽을수 없습니다.

오늘의 대경사인 려명거리의 완공도 원수님의 애민헌신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자신에게는 인민의 모습인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안겨온다고 하시며 인민들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것을 안겨주시려고 언제나 마음쓰시는 원수님께서는 지난해에 려명거리건설을 몸소 발기하시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이 건설을 힘있게 내밀도록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시고 필요한 대책들도 다 취해주셨습니다.

지난 3월중순에는 이른 새벽 완공단계에 이른 려명거리건설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시면서 멋있다고, 려명거리에서 살게 될 인민들이 좋아하는 모습이 눈에 선히 떠오른다고, 우리는 인민들이 좋아하고 인민의 리익을 존중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힘겨운 일이라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현대적인 거리의 살림집 하나하나에도, 건물들의 특색있는 모양, 외부색갈과 타일들에도, 봉사망의 의자, 거리의 화단과 풀 한포기에 이르기까지 려명거리에는 원수님의 사랑이 깃들지 않은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을 치받으며 솟아난 70층, 55층, 50층 초고층 아파트들도 수령님들의 사랑에 담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일떠세워주신 세상에서 제일높은

인민이 사는 집이고 불과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그처럼 거창한 하나의 거리를 일떠세워 태양절을 맞으며 인민들이 새집들이할수 있게 된 건설의 새 기적도 원수님의 인민사랑으로 꽃피어난 이 땅의 감동깊은 사변입니다.

인간이 사는 행성에 아파트들이 많고 초고층건물들도 있지만 문명의 아득한 높이에 올라서 세상을 내려다보며 행복을 누리려는 인민이 사는 집은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봅니다.

수령님들의 인민사랑을 받들어 원수님 가꾸어가시는 인민의 집은 보통의 집이 아닙니다. 쓰기에 편리하고 보기에도 황홀한 최상급의 집입니다.

두해전 대동강반을 따라 미래 과학자거리가 일떠섰을 때 저를 비롯하여 우리 비전향장기수들도 찾아보고 그림을 그린것처럼 너무 황홀하고 웅장하여 감탄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려명거리는 그보다도 규모가 몇배나 더 크면서도 황홀함은 이루 말할수 없어 온 나라 인민들의 관심과 부러움이 여기로 쏠리고있습니다.

지난해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아와 친선로동을 한 외국인들이 건설장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것을 본 다른 나라사람들이 《이게 조선에서 건설한다는 려명거리인가.》하며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데 우연한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도 불만 하였는데 완공된 지금의 거리는 그때보다 몇배나 더 눈에 부십니다.

낮에 보아도 멋있고 불장식을 한 밤에 보아도 그지없이 아름답고 황홀한 미래형의 려명거리는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원수님의 인민사랑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넓은 세계가 안아온 행복의 무릉도원이고 원수님 가꾸어가시는 머지않은 앞날의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환희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수산태양궁전과 가까이 잇닿아있는 지구에 인민이 사는 또 하나의 훌륭한 새 거리를 일떠세워주시었으니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행복넘친 인민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라고 몸소 위치도 잡아주시고 건

설을 최단기간내에 끝내도록 결을결을 이끌어주시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인민이 깊은 단잠에 든 이른 새벽, 깊은 밤에도 현지도도를 다녀오시던 이 길, 수령님들의 애민헌신의 발자취가 뜨겁게 스미여있는 려명거리의 넓고 불박은 이 길을 오가며 인민들은 지금 행복에 겨워 기쁨의 웃음을 터치고 밤이 깊도록 《지새지 말아다오 아름다운 평양의 밤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민이 안겨사는 행복의 큰 집, 로동당만세소리 날로 더욱 높아가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의 큰 집은 다름아닌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태양의 품이고 그 빛말이 아침해살처럼 모두의 가정, 온 나라 창가마다에 마스하게 스며드는 우리 세상은 이 행성에서 제일좋은 인민의 참 세상입니다.

이런 훌륭한 인민의 세상을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이 《인권》이요 뭐요 하고 헐뜯으면서 비열한 제재소동에 매달리고있으나 절세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조국은 나날이 비약하고 번영하고있습니다.

조선의 진실은 우리 공화국을 눈에 둔 가시처럼 여기며 압살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자애에 담겨져있는것이 아니라 이 땅의 찬란한 현실, 이 나라 인민들의 밝고 명량한 표정과 행복에 겨운 목소리들에 다 어려어있습니다.

이 땅 어디를 가나 인민은 웨치고있습니다. 사회주의 내 나라가 제일이라고, 원수님의 정치가 제일이라고.

인간이 갈구하는것은 사랑입니다. 인민사랑이 리념으로 되고 정치로 되고 인민을 위해 려명거리와 같은 행복의 거리, 인민의 리상향을 앞당겨 펼쳐 오고있는 이 땅에서는 지금 사회주의강국의 찬란한 려명이 밝아오고있습니다.

그 강국의 려명이 통일의 려명으로 이어져 온 겨레가 얼싸안을 통일환희의 그날이 머지않아 오리라는것을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며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의 길에 여생을 바쳐가렵니다.

비전향장기수 김 동 기



저와 남편은 나라를 위해 자랑할 만한 일을 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두 자식을 거느린 평범한 로동자부부입니다. 려명거리가 완공되면서 우리 가정은 새 집에 이사하였습니다. 부부방, 자식방, 공동살림방과 부엌을 비롯하여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구비된 고대광실같은 집입니다. 살림방들은 전등과 태양빛전지에 의해 조명이 환하고 광실형피동식 태양열난방기술과 지열난방체계가 도입되어 실내 온도를 20℃이상 보장하고 발브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니 한겨울

# 정말 고맙습니다

-려명거리 새 집에서 보내온 편지-

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인 저에게는 부엌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가시대며 찬장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고 벽을 장식한 타일은 고급한 장식자기와도 같이 산뜻합니다. 아이들이 공차기를 해도 될 정도로 넓은 살림방들과 맑은 물이 팔팔 나오는 세면장, 문양고운 가구들과 출입문들, 옥돌을 다듬어 붙인 것 같은 문손잡이, 마치 수림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감을 주는 벽지문양... 정말이지 살림집이 아니라 호화로운 궁전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나라에서는 돈 많은 부자들이나 쓰고 살 수 있는 집, 평민들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이런 주택에서 살게 된 기쁨을 무엇이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며칠전에는 새로 이사 집을 푼 우리 집에 이아 빠트를 건설했다는 군인 건설자들이 찾아와서 수

주요 돌아갔으니 원수님의 인민사랑이 더 잘 미치도록 세심히 관심해 주는 그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고 너무도 분에 넘치는 배려에 고마움의 격정을 누를 수 없습니다. 이런 훌륭한 새 거리, 새 집들을 지어 무상으로 우리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평양시 대성구역 려명동 김은정

# 즐거움과 이채로움을 주는 봄철관광



온갖 꽃 만발하는 봄 계절에 들어서면서 공화국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색있는 관광일정에 따라 사람들은 회결과 랑만에 넘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인기를 끄는 것은 초경량비행기에 의한 관광비행이라고 할 수 있다. 멋들어진 초경량비행기를 타고 수백m 높이로 떠올라 5월1일경기장과 룡라팝등어관, 김일성광장, 주체사상탑, 미래과학자거리, 과학기술전당 등 향로를 따라 날으면서 웅장화려한 평양의 아름다운 전경을 내려다보는 쾌감과 멋이란 말이니 글로 다 표현할 길 없다.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서해갑문까지도 날아갈 수 있고 비행기편대를 조직하여 가족 또는 일행이 함께 하늘을 날으는 이채로운 관광여행이 끝나면 기호와 구미에 따라 비행기모양의 멋들어진 봉사시설에서 평양랭면과 같은 특색있는 민족 요리들, 여러 나라의 이름난 요리들과 청량음료를 봉사받을 수 있어 더욱 좋다. 그런가하면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한 멋쟁이

건축물로 일떠선 과학기술전당을 찾는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도 늘어나고 있다. 천도개벽한 대동강의 축섬에 들어서면 펜촉모양의 과학기술상징탑과 그 뒤로 원자구조모양의 독특한 건축양상을 한 과학기술전당의 웅건한 모습이 한눈에 안겨온다. 거대한 과학기술전당을 떠이고있는 듯 서로 쌍을 지어 교차되어 서있는 철기둥들, 전당의 기본골격을 이루는 《전자자리길》들, 돛배모양의 특색있는 속스와 야외과학기술전시장, 분수공원 등이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의 전당건물과 조화롭게 어울려 뛰어난 건축학적개성을 펼쳐보이고 있는 전당을 돌아보며 외국인들과 해외동포들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전민학습의 대전당》, 《조선의 인재중시 정책이 응축된 건축예술의 극치》라며 저마다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관광객들의 즐거운 웃음소리는 중앙동물원에 위치한 자연박물관에서도 끊없이 울려나오고 있다. 커다란 공룡골격모형을 전시한 중앙홀과 우주관, 고생물관, 동물관, 식물관, 선물관, 립시전시관

등 어디라 할 것 없이 자연환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자연박물관. 각이한 나라와 각이한 환경에서 사는 희귀한 동물들과 태평양의 깊은 바다물속, 사막이나 습지대, 열대의 울창한 수림,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아열대의 무연한 초원 등 너무나도 생동한 자연박물관의 전시물들을 배경으로 하여 저마다 기념사진을 찍기도 하며 시간가는 줄 모르는 관광객들이다. 그뿐이 아니다. 면바로 쏘아 맞힌 썰을 비롯한 동물들을 받아안고 기뻐하는 메아리사격판에서도, 물의 세계를 마음껏 느끼게 하는 문수물놀이장에서도 사람들의 즐거움과 랑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공화국에서는 관광객들의 요구에 따라 백두산지구, 금강산지구, 개성지구, 묘향산지구, 룡악산지구, 마식령스키장에 대한 관광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목적지에 따라 1박2일, 2박3일, 3박4일 관광봉사를 하고 있다. 화창한 봄날의 관광은 국내외의 관광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깊은 감명을 안겨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철호



#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

공화국의 한덕수평양경공업 종합대학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과학연구성과들을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대경길가 공공장의 조미김가루생산공정을 비롯한 4개의 생산공정을 완성하고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는 등 현대화공사에서 큰 몫을 맡아 해체했다. 또한 평양화장품공장의 머리칼고착제와 향수생산공정을 확립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화장품용기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였다. 기계공학부와 식료과학기술 대학의 연구집단은 피운공생산공정에 필요한 설비들의 제작과 조립을 끝내고 종균배양과 질제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피운공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얼마전 이곳 대학에서는 100% 국산화된 가방용천생산공정을 확립하여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교복뿐 아니라 가방도 우리의 것으로 안겨줄 수 있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곳 대학에서는 생산과 과학연구가 일체화된 대외경공업기술교류사를 내오고 세계적발전추세에

맞게 새 제품개발을 밀고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 식료설비의 국산화 실현에서 뚜렷한 전진이 이룩되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의 하나가 강병이가공설비들을 개발하여 송도원종합식료공장, 평양강병이가공공장에 도입한 것이다. 교류사에서 만든 강병이가공설비로 송도원종합식료공장에서 강병이튀기, 강병이강장, 강병이국수 등을 만들고 있는데 그 맛이 참 좋아 인민들속에서 인기가 대단하다. 교류사에서는 사랑생산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는데서 제일 난문제라 되고있는 당공정의 설비를 국산화하여 사랑생산공정의 무인화를 실현하였을뿐 아니라 반죽물의 질을 좌우하는 분쇄기와 교반기를 개발하여 경공업공장과 세포지구축산기지에 보내주었다. 현재 교반기를 사용하고 있는 단위들에서 반죽시간을 종전보다 훨씬 줄이면서도 반죽물이 유연해져 제품의 질적수준이 대단히 높아졌다고 좋아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나라의 식료공업발전에 이바지할 보다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앞으로 또 장설비, 수감설비들도 반드시 자체의 힘과 기술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의지이다. 본사기자

나는 얼마전 조카의 결혼식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혈연의 정만은 어쩔 수 없는가보다. 나는 언니와 아저씨, 조카 그리고 조카사위를 한시바빠 보고 싶어서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왔다.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예술단체에서 일한다는 조카는 인물맵시가 빠진데 없으니 아마 신랑감도 멋있을 것이다. 나는 조카사위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미남자의 모습도 그려보았고 멋쟁이차림의 림름한 지식인 청년의 모습도 그려보았다. 하지만 결혼식에 참가한 나는 두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봄날에 피어난 한 떨기 꽃같은 조카의 옆에 있는 조카사위, 내가 그렇듯 보고 싶었던 조카사위가 놀랍게도 밀차에 앉아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말 놀라웠다. 나의 조카의 미모와 학력, 재능에 어떻게 장애인과 짝을 못게 될 수 있는지 리해가 가지 않았다. 결혼식장에서 《축복하노라》의 노래소리에 맞추어 박수갈채와 축하의 목소리들이 떠들썩하게 울리고 참가자들이 기쁨에 겨워 축배잔

을 높이 들었지만 나는 선뜻 잔을 들 수 없었다. 솔직히 조카가 측은하게 느껴졌다. 어느 나라에서나 청년들이 타산결혼을 하고 있다. 사랑도 경제적대대에 기초한다는 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공개적인 토로이다. 순수 사랑을 론하던 때는 지나갔다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결혼이 없고 결혼이 있는 사랑이 없다》는 말도 그래서 생겨났는지 모른다. 남조선에 갔던 친구의 말을 들으니 그곳에서도 많은 녀성들이 《결혼은 굴레》라고 하면서 결혼하기를 두려워 한다고 한다. 건장하고 잘 생긴 남자들도 돈이 없으면 장가가기 힘들고 미인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황금의 노예가 되어 사랑가에 몸을 기대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다. 그러니 불구자와의 결혼에 대해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으랴... 나의 생각을 깨뜨리며 결혼식장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는 만리마시대의 또 한쌍의 원앙새부부로 태어난 새 가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신랑, 신부의 박수갈채와 축하의 목소리들이 떠들썩하게 울리고 참가자들이 기쁨에 겨워 축배잔

지 않은 사고로 두다리를 잃었다고 한다. 신부는 아름다운 미모에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전도유망한 예술인이지만 술한 멋쟁이총각들의 청혼도 마다하고 조국보위의 길에 청춘을 바친 영예군인의 한쌍의 길동무가 될 결심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회자는 이들의 사랑이야말로 키워주고 내세워주고 참되게 살라고 손잡아 이끌어준 어머니조국을

나의 가슴은 이룰 수 없는 걱정에 휩싸였다. 마치 어떤 사랑의 신화를 듣는 듯 황홀한 감정마저 들었다. 그토록 깨끗한 사랑에 순간이나마 오해를 가지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요란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신랑신부를 축하하려는 대학동창생들, 인민반사람들, 조카사위가 복무한 부대군인들, 언니와 아저씨의 직장사람들이 영예군인과 한가정을 이루는 조카를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참으로 그날의 결혼식은 나에게 있어서 감동의 연속이었다. 지금껏 적지 않게 결혼식에 참가해왔지만 그처럼 뜻이 깊은 결혼식은 처음이었다. 재산이나 명예의 높이가 아니라 애국의 높이, 정신세계의 높이를 사랑의 기준으로 삼는 조국의 청춘남녀들에게 머리가 숙여졌다. 그들이야말로 지경밖의 다른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주인공들이었다. 나는 신랑, 신부를 보고 또 보았다. 불수록 사랑스러운 나의 조카, 불수록 미더운 나의 조카사위였다. 나는 신랑, 신부에게 아낌없는 축복을 보냈다. 그들의 앞길이 언제나 밝고 창창하기를 바라며... 재중동포 리영미

# 아름다운 인간들의 모습

# 북이 이길 수 밖에 없는 이유

지금 행성의 이목은 크지 않은 조선반도로 쏠려져 있다. 미국의 선제타격 움직임으로부터 촉발된 조선전쟁발발위협이 세인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고 있다. 미국에 의해 한차례 참혹한 전쟁의 재난을 겪

은 조선민족, 이제 다시 전쟁이 터지는가 마는가 하는 위기일발의 분분초초가 흘러가고 있다. 하다면 지금 행성이 지켜보는 조선반도의 남과 북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 전쟁불안에 떠는 남, 평온한 북

지금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발발의 불구름은 미국에서 물러오는 것이다. 미국은 북의 있을 수 있는 자위적인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 케트시험발사를 넘두에 두고 《도발》이니 뭐니 하며 모든 선택안을 탁상우에 놓고 있다고

로 불리우는 대조선정책을 책정하고 군사적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면서 전쟁은 눈앞의 현실적인 위협으로 박두해 오고 있다. 북에 대한 선제타격은 곧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쟁의 발발을 의미한다.

전쟁이 터졌는가 하여 소동을 피우는 일까지 있었다. 《전쟁이 난것 아니냐》는 문의전화가 비발치고 《소셜네트워커 서비스》(SNS) 등에는 《불안하다》, 《전투기평음때문에 심장 내려앉는것 같았어요》, 《전투기소리 한번에 다들 덜덜 떨었다》는 네티즌들의 불안에 찬 목소리들이 차고넘쳤다. 이날에 극도의 전쟁공포증이 확산되어있는 지금 휴전선을 통해 마주하고있는 북의 표정은 너무도 대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태양절을 맞으며 북을 방문했던 나는 급박하게 돌아가

## 전쟁에 준비된 북

이남은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여있는데 북은 왜 이처럼 평온하고 여유작작한가 하는 것이다. 물론 북주민들이 지금의 급박한 정세를 모르는것은 아니다. 북의 신문들과 TV로도 미국에 의해 물러오는 전쟁위협에 대한 보도들이 계속 실리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반응에서는 북과 남의 표정이 너무도 상반된다. 왜서인가. 그것은 전쟁에 대한 북의 관점, 자신감에 기인된다고 생각한다.

북의 평온하고 태연자약한 모습은 전쟁에 대처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전쟁은 국가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 진행되는 가장 크고 어려운 싸움이다. 북은 오래전부터 미국에 의해 발발할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왔으며 그 준비는 끝난 상태에 있다. 북은 재래식전쟁이든, 핵전쟁이든 다 대처할 수 있게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 설사 핵을 쓰지 않더라도 재래식 무기만으로도 얼마든지 전쟁을 속전속결의 승리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것이 북의 자신감이다.

미국이 전쟁을 도발하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겠다는 북의 선언과 태연자약한 모습의 바탕에는 바로 이런 무적의 군력이 놓여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보병총을 가지고서도 핵무기로 위협하며 달려드는 미국과 싸워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는데 동방의 핵강국지위에 올라선 오늘에 와서 미국의 전쟁놀음은 한갓 아이들의 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눈아래로 보는 북의 군민이다.

이런 북하고 미국이 싸워서 과연 이길수 있겠는가. 전쟁은 정신력의 대결이고 군사적힘의 대결이다. 북은 세계가 다 인정하는 정신력의 강자이고 군사적힘에서도 능히 침략세력을 압도하며 깃누를수 있는 군사강국이다.

만일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는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미국은 선제타격이든, 전면전쟁의 방법이든 북을 굴복시킬수 없고 무너뜨릴수 없다. 오히려 제가 지르는 전쟁의 화염에 제가 타죽는 참혹한 신세가 될것이다. 미군기지들이 들어차있는 일본도 무사할수 없고 북의 로케트는 물론 수천만문의 장사정포들의 사정권내에 있는 이남의 경우에도 그 참혹한 피해와 재난은 말과 글로 다 형언할수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선제타격》기도는 서울불바다, 아메리카장송곡으로 이어지는 어리석은 시도로 될뿐이다.

재오스트랄리아동도 박미자



위협해왔다. 미국은 더는 가만 있지 않겠다고 으르렁대며 북의 핵기지 등에 대한 《군사적 선제타격》 폭언을 련일 늘어놓고 수리아의 공군기지에 대한 미사일타격을 감행하고는 그것이 《조선에 대한 경고》라고 내놓고 말하고 있다. 이남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2017 맥스 썬더》와 같은 군사연습들이 계속되고있는 속에 미국은 핵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조선반도수역으로 다시 급파하고 여기에 항공모함 《니미즈》호와 《로날드 레간》호타격단까지 합세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하기에 지금 일본을 비롯한 주변나라들에서는 조선전쟁위기가 대대적으로 나돌고 위험한 이남지역으로의 여행이나 관광을 삼가할데 대한 경고음이 계속 울리고 있다. 전쟁이 나면 1차타격지대로 될 이남의 경우에는 전쟁불안이 최고조에 달해있다. 각계층 남녀노소가 당장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위기감에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전쟁이 나면 안된다며 저마다 안보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가뜩이나 염전기운이 강한 이남군내부에서도 전쟁이 나면 다 죽을수 있다는 공포감이 휩쓸고 있다. 며칠전에는 제25회 서울 국제휠체어마라손대회 축하비행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이남공군의 여러대의 전투기들이 서울의 강남상공을 비행하였는데 갑작스레 나타난 비행기들과 그 평음에 놀라 시민들이

는 정세와는 무관하게 너무도 평온하고 여유작작한 북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수 없었다. 평양의 거리거리는 명절분위기에 들떠있었고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표정들에도 전쟁에 대한 위기감을 보여주는 그림자는 조금도 찾아볼수 없게 모두가 밝고 명랑해있었다. 4월의 봄명절을 뜻깊게 장식한 려명거리준공식도 놀라운 것이었다. 밖에서는 전쟁이 난다고 아우성인데 대규모 새 거리의 준공식이 성황리에 펼쳐지고 수천세대의 주민들이 기쁨속에 이사를 하는 감미로운 풍경은 과연 여기가 조선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까지 하였다. 북에 체류하고있는 서방기자들도 25일 북의 군창진전모습을 전하면서 시민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평온하게 명절을 쇠었다고 전하였다.

북체류시 내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터친 심중의 토로는 그들이 전쟁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을 잘 엿볼수 있게 하였다. 한마디로 북의 인민들은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피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의 정부와 군대의 단호한 립장이면서도 온 나라 남녀노소의 공동된 전쟁관점이라 할수 있다. 북의 인민들은 지난 조선전쟁이후 60여년동안이나 미국에 의해 언제 터질지 모를 전쟁위험을 항시적으로 당해왔다. 그들에게는 전쟁위기가 새롭고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압살의 광기를 부려온 미국과는 어차피 한번은 맞붙어야 한다는 각오를 세기를 이어 품어온 북의 군대이고 인민이다. 지금 새 세대 청년들의 가슴마다에도 부모들의 조국수호념과 전통을 이어 미국과 총대포 최후결산을 하려는 의지가 차넘치고 있다.

이번 태양절에 성대히 거행된 북의 열병식을 보면서 나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수 있었다. 지축을 울리며 보무당당히 행진해나가는 열병군인들의 얼굴마다에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에 대한 서리발같은 증오가 어려있었고 쌓이고쌓인 증오와 보복의 감정을 터쳐 침략의 아성을 불바다에 잠그고 조국통일성전을 결속하고야말 의지가 넘치고있었다. 또 광장을 짝 메우며 지나가던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은 북이 미국의 그 어떤 선택과 수단에도 다 대응할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핵강국, 군사강국이라는것을 실증 해주었다.

만일 미국이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섬멸적불소나기를 퍼부어 전쟁을 승리로 결속할 인민군대의 보복의 의지와 엄청난 타격력을 잘 알게 될것이다.



## 조선의 선언

김윤식

4월의 열병광장 노도쳐가던 무적의 철갑대오가 분노의 불을 뿜노라  
감히 《도발》과 《선제타격》을 뇌까리며  
분별없이 쓸어들어 날치는 침략자 미제의 핵전쟁광기앞에서  
비대한 몸집민고 설쳐대는 괴물인양 아메리카산 백치들이 부나비처럼 밀려들었다  
《칼빈슨》이며 《미시간》호 《최강》을 뿜낸다는  
각양각색의 핵전략자산들 앞세우고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조선은 단호히 선언하노니  
감히 움쩍만 하라  
처절한 죽음 주리라 무자비한 핵선제타격으로  
오산하지 말라  
핵은 더이상 너희들 독점물이 아니다

위협공갈에 움츠러들 우리가 아니라 화산같은 증오터쳐 악의 소굴 두들겨팼  
우리의 보복의지 하늘끝에 닿았다  
가증스런 침략자 죄많은 역도들이 더러운 그 숨통 가차없이 끊어내칠 징벌의 거세찬 분출  
무자비한 선제타격의 불세례는 생존불가능을 선고하는 조선의 대답  
하늘이건 땅이건 바다에서건 허세부리며 덤벼들레면 들라  
《칼빈슨》이건 《미시간》이건 수다한 침략기지가든 워싱턴이든 불무덤으로 만들리라 후회할새도 없이  
오, 미제멸망의 마지막폐지를 우리는 정의의 불로 쓰리라  
피끓는 분노와 증오를 만장약한 조선은 최후결전의 시각을 기다린다  
최후승리의 승전포성 울릴 그날을 기다린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공화국에 대한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모략선전에 매달림으로써 세상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리워왔다. 지금도 공화국에 대해 《단긴》 나라니, 《폐쇄》 국가니 하는 각종 악의와 험담들이 서방언론들을 어지럽히고 있다. 하다면 서방세계의 말대로 조선이 정말로 《단긴》 나라이고 《폐쇄》 된 국가인가. 여기에 얼마전 로씨야의 스푸트니크방송기자와 공화국에 대한 관광사업을 말아보는 유럽의 한 전문가가 나눈 인터뷰의 한 대목이 있다. 물음: 관광객들이 북을 방문한 후 북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꾸는가? 대답: 98~99%가 인식을 바꾼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북을 방문하기 전에 북에 대해 두려워하였

는데 이것은 사실상 서방언론들의 심히 외곡된 보도와 일부 나라들이 조작한 내용으로 인한 잘못된 인식때문이었다. 외국인관광객들은 북을 방문하면서 길바닥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없고 또 주민들 누구나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갖춘 상

의 소감을 말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본 서방의 악선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선의 현실, 평양의 모습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공화국에 와본 외국인들 누구나 할것없이 공통적으로 느끼는것은 사회가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

주의조선을 동경하는 인류의 마음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평양에서는 뜻깊은 태양절을 계기로 만경대상국제마라손경기대회가 28번째의 년륜을 새기며 성대히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5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100여명의 마라손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이제 사회주의조선의 현실을 목격한 그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것인가는 불을 보듯 명백하다. 아마도 진실을 가리우려는 어리석은자들에게 면박을 주면서 내가 본 조선은 세계에서 가장 열린 나라, 평양은 대단히 문명하고 황홀한 도시, 조선인민은 참으로 행복한 인민이라고 열변을 토할것이다. 본사기자

## 외국인들이 본 조선의 현실

태에서 안정된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몹시 놀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에스빠냐 플라멩코음악단 단장은 깊은 감명속에 《조선에 대한 선입견과 정면충돌하는 경험이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피력하였으며 같은 음악단의 한 성원도 《쇠뿔한 도시, 금이 간 건물들 예상했는데 실지 평양의 모습은 훨씬 현대적이었다.》고 자기

되어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화국에 와서 눈앞의 현실을 믿기 어려워하고 자기들이 기만당하는데 대해 분개해하는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공화국의 현실을 외곡하며 반사회주의,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광분하여도 력사의 진실을 절대로 가리울수도 숨길수도 없다. 또 정의와 화복, 아름다운것을 지향하고 그 모든 것이 현실로 펼쳐진 사회

## 《미치광이전략》도 통할수 없다

미국의 호전적인 전쟁 광기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각각각 커가는 지금 세계의 군사전문가들속에서는 미국이 《미치광이전략》을 쓰고 있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미치광이전략》이란 남들이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행위를 감행하여 상대국으로 하여금 미국을 비리성적이고 비상식적인 《미치광이국가》로 믿게 함으로써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고 굴복해나오도록 한다는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말한다. 이 전략을 고안해낸것은 전 미국 무장관 키신저이다. 저들의 침략적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을 방법을 가리지 않는 횡포하고 음흉한 미국은 이 전략에도 매달려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굴복시키곤 하였다. 지금 현실에 대한 초보적

인 감각도 없고 리성도 상실한 미국이 조선을 상대로 한 마지막대결전에서 이 전략을 사용하려 한다는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과연 그것이 통하겠는가 하는것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그 공포의 전략, 《미치광이전략》이 다른 나라들에는 통했는지 모르지만 자위의 핵을 틀어친 조선에는 후호도 통할수 없다는 그것이다.

조선은 원래부터 미국을 침략과 살인에 미친 나라로 보고있다. 저들의 침략적이며 지배자의적목적실현을 위해 유엔도 안중에 없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고 주권국가들의 자주권과 평등완정도 마구 짓밟는 미국이고보면 그 미국의 행동이 어느것 하나 미치광이것이 아닌척 하여도 조선의 눈에는 미국이 침략과 불의의 대명사이고 제국주의 미친

나라가 아닐수 없다.

지금 미국정계에서는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 매일같이 세인을 경악케 하는 폭언들이런 속 튀어나오고있다. 그 누구에 대한 《선제타격》이 전면전쟁으로 이어지고 그 후과가 어떻게 되겠는지는 생각하는지 마시라 《모든 선택안》이니 《군사적선택안》이니 떠들고 항공모함을 조선반도주변해역에 파견한다, 어쩐다하며 당장 무손을 칠듯이 북타소동을 피워대고있다.

그 미국의 요란한 폭언과 군사적움직임에 세계가 놀라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이 박두》, 《전쟁위위》 등 불안스러운 목소리들을 내고있지만 당사자인 공화국은 어디 끄적이나 하고있는가. 러명거리준공식 등 자기 할것은 다하고있다.

반미최후결전의지로 만

장약되고 각종 현대적인 방어수단, 공격수단들을 다 가진 공화국은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파견한다, 《짜드》를 배치한다 어쩐다하며 지랄발광하는 미국을 한갓 종이범으로밖에 치부하지 않고있다. 그런 미국을 하내비처럼 섬기며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동족을 어찌보려 날뛰는 남조선의 친미호전세력들도 가급하하지 않을수 없다.

우리 나라에는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미국이 《미치광이전략》을 쓰고있든, 아니면 실제로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쟁도박판에 뛰어들려는 미친짓을 하고있든 조선의 의지를 추호도 꺾을수 없고 엄청난 화를 자초하게 될것은 바로 자기자신이라는것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정혁

## 박근혜가 친군정인 **《정권》**의 정황

최근 초기 《대선》으로 분주한 남조선에서 보수세력이 재집권을 위해 갖은 넉두리를 늘어놓으며 아부제기를 치고 있다.

《북이 지지하고있는 후보에게 《정권》을 맡기면 안보에 통구멍이 뚫린다.》고 하면서 케케묵은 《중복》소동, 《색갈론》으로 민심을 오도하고있다. 그런 가 하면 《이번 (대선)에서까지 밀리면 보수는 완전히 망한다.》, 《보수대통합밖에 출로가 없다.》고 아우성치면서 《보수후보단일화》를 들고나오고있다.

그렇다. 등돌린 민심을 어떻게 하나 끌어당겨 보수세집권을 이루어보려는 어리석은 술책이고 단말마적인 몸부림이 아닐수 없다.

새 정치, 새 생활을 바라는 초불민심이 바라는것은 보수의 재집권이 아니라 《정권》교체이다. 지난 9년간 리명박과 박근혜의 《정권》을 보면서 남조선인민들은 보수 집권하에서는 사회의 민주화나 진보는 고사하고

초보적인 삶도 실오리같은 희망도 있을수 없다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절감하였다.

《경제대통령》이니, 《준비된 녀성대통령》이니 하던자들은 민생은 아랑곳없이 권력을 휘둘러 치부에만 골몰해왔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까지 간다고 그 아랫것들도 저저마다 권력을 획책의 수단으로 여기며 돈갈퀴질에 구성이였다.

그로 하여 남조선에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사회의 암흑상을 말해주는 《홍수저》, 《헬조선》, 《지옥반반도》, 《N포세대》, 《청년실신》, 《취업강제》, 《갑질세상》, 《개한민국》, 《국민절망시대》, 《국민자살시대》 등의 개탄스러운 《신조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경제를 살린다.》며 강바닥이나 파는 《정권》,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운운하며 저들만의 꿈만 애지중지해온 《정권》이 바로 《리명박근혜》의 부패보수 《정권》이였다.

하기에 남조선민중은 썩을대로 썩은 보수 《정권》을 통채로 뒤엎고 민중을 위한 새 《정권》을 민중의 힘으로 세우기 위해 항쟁의 초불을 추켜들었던것이다.

개교리 삼년가도 황모가 될수 없는것처럼 보수가 아무리 변색하고 치장해도 역시 민중을 대표할수 없고 민중의 지향과 요구를 실현할수 없다는것은 남조선정치사의 교훈

본사기자 류현철

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북인권증진기본계획》 조작놀음은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여 저들의 죄악에 쏠린 민심의 이목을 단대로 돌리며 비렬한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을 다음 《정권》에서도 연장해보려는 대결광신자들의 또 하나의 모략광대극이다.

실상 참혹한 인권의 생지육은 남조선이다.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 감옥행을 한것도 결국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생은 아랑곳없이 최순실과 같은 일개 선무당과 저들의 향락과 치부만을 추구하고 정유라와 같은 특권층의 자식들에게만 특혜를 주며 안락이 구원을 바라는 《세월》

넣는데 앞장서온것이 바로 남조선의 통일부이다.

지금까지 저지른 최악도 모자라 운명이 경각에 다달은 마지막순간까지 대결에 환장하여 돌아치고있는 남조선의 통일부것들이야말로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 역적무리들이 분명하다.

《대결부》, 《밤통부》, 《분별부》, 《유인람치부》, 《귀순공작부》 등의 온갖 너절한 오명을 다 쓰고있는 대결광신자들의 반통일최악은 이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것이다.

《북인권》이니 뭐니 하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는 자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것은 박근혜의 말로가 지금 똑똑히 보여주었다.

그 누구든지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에 매달리면서 공화국의 존엄과 체체를 해치려고 발광하는자들은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다.

본사기자 최광혁

## 대결광신자들의 모략광대극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정부》가 추진할 《북인권증진기본계획》이라는것을 수립하여 발표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북인권 증진기본계획》은 지난해 9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간 《북인권법》에 따라 남조선의 통일부가 작성한것으로서 여기에는 《대북 인도적지원》과 《인권실태》조사, 《남북인권대화》추진 등 《북주민의 인권증진방안》이니 뭐니 하는것들이 포함되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나방영이들은 이번 《계획》이 《초당적, 원칙적내용》으로 되어있다고 하면서 《집행계획은 새 《정부》출범이후 확정될 전망》이라고 떠들고있다.

집권기간 저지른 온갖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패, 북남관계를 완전파괴으로 몰아넣은 만고최악으로 지금 남조선보수당은 최악의 궁지에 몰려

인민대중의 리상과 꿈이 찬란한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 공화국에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민대중의 인권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보호증진시켜나가고있는 공화국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속에서 도 인민생활향상과 보다 훌륭한 미래를 안아오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남조선보수페당이 입만 열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떠들어대지만 사

호의 수백명의 아이들을 통채로 바다에 수장시킨 역도년년에 대한 력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이다. 그것은 바로 온 남녘땅을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인권의 폐허지대로 만들고 동족대결에 광분해온 특대형죄악의 대가이며 응당한 봉변이다.

지금 권력의 자리에 앉은 남조선의 보수페들역시 박근혜역도의 공범들이다.

천하의 반통일악녀의 너절한 수족이 되어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에 몰아

갖추어야 한다.》, 《북의 핵, 미사일도발이 예상되니 즉각적인 대응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안보위기》를 고취하고있다. 이것이 분별된 보수세력을 규합하여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해서나 이겨보겠다는 흥심의 발로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통하겠는가.

박근혜를 탄핵시킨 천수백만

들이다. 지금 보수세력들은 《좌파정권》이 10년동안 집권하면서부터 남조선에 《안보위기》가 들이닥쳤다고 아부제기를 치고있다. 뒷것도 검다고 우기는 자들의 파렴치한 껀변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이 《좌파정권》이 집권했다고 하는 10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우리 겨레에게

고 개성공업지구의 기계도 힘차게 돌렸다.

한중도 못되는 반통일세력들이 6.15시대의 거세찬 흐름을 막아보겠다고 《주적》론과 《대결》론을 떠들며 《안보》분위기를 고취하느라고 가같은 부렸지만 그것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밖에 여기지 않던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전쟁의 불꽃이 아니라 동포애의 정만이 흐른 6.15시대에 《안보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떠드는 보수세력들은 반통일세력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만 드러낼뿐이다.

불과 남이 힘을 합쳐 이룩한 6.15시대의 귀중한 성과와 창조물들은 리명박, 박근혜의 보수 《정권》하에서 완전히 짓밟혀졌다. 리명박이 《천안》호침몰사건과 같은 날조극으로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였다면 박근혜는 그 무슨 《핵포기》를 떠들며 6.15시대



평화행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30일 평화행동을 선언하고 있다.

## 평화파괴자들이 떠드는 《안보위기》라령

초불민심이 보여준것은 단순히 한갓 무당에 놀이나 《국정》을 말아먹은 박근혜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여기에는 박근혜의 사대매국정치와 동족대결과 함께 평화를 파괴한 전쟁세력들에 대한 민심의 저주와 분노가 있다. 평화화원이 그대로 초불민심이다.

사실상 《안보》를 떠드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과 같은 보수분자들은 이 땅에서 전쟁을 몰아온 평화파괴분자들로서 《안보》에 대해 입에 올릴 자격도

있어서 있을수 없는 6.15통일시대였다. 그 10년세월 반세기 이상이나 굳게 닫겨있던 하늘길, 땅길, 바다길이 열리고 국제무대에서는 단일기가 날리며 조선민족의 힘을 과시하였다. 불신과 대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물결이 오고간 화목하고 평화로운 날과 달이 흐른 10년이였다. 아득하게만 느껴지던 통일의 날을 눈앞에 바라보며 북의 세계명소인 금강산관광길과 《아리랑》공연관람길에 저저마다 나서고 북남이 서로 손잡

고 개성공업지구의 기계도 힘차게 돌렸다. 한중도 못되는 반통일세력들이 6.15시대의 거세찬 흐름을 막아보겠다고 《주적》론과 《대결》론을 떠들며 《안보》분위기를 고취하느라고 가같은 부렸지만 그것을 지나가는 바람소리밖에 여기지 않던 북과 남의 우리 민족이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전쟁의 불꽃이 아니라 동포애의 정만이 흐른 6.15시대에 《안보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떠드는 보수세력들은 반통일세력으로서의 추악한 정체만 드러낼뿐이다.

불과 남이 힘을 합쳐 이룩한 6.15시대의 귀중한 성과와 창조물들은 리명박, 박근혜의 보수 《정권》하에서 완전히 짓밟혀졌다. 리명박이 《천안》호침몰사건과 같은 날조극으로 북남사이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였다면 박근혜는 그 무슨 《핵포기》를 떠들며 6.15시대

의 귀중한 옥동자인 개성공업지구도 무지막지하게 짓밟아버렸다.

퍼를 나누는 동족은 《적》으로 규정하고 침략적인 외세와는 《혈맹》을 부르짖으며 북을 겨냥한 핵전쟁도발소동으로 이 땅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면서 남조선인민들에게 전쟁공포증과 불안만을 가져온 리명박근혜 《정권》이다. 잔뜩뜩에서는 싸리만 나온다

《침수작전》과 같은 소름끼치는 막말과 작전계획들을 서슴없이 공언하고 그것을 실천현전에 옮기고있으며 《짜드》라는 전쟁괴물, 재앙의 화근까지도 남조선에 거리낌없이 끌어들이고있다. 《안보》의 미명하에 벌어지는 이러한 놀음이 가족이나 불안속에 헤매이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더욱 큰 공포를 주고있는것은 당연하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안보》를 떠드는 보수세력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을 몰아오며 인민들에게 불안과 고통만을 들뜨우는 《안보불안》세력이라는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이런 《안보불안》세력들이 권력을 잡는다면 제2의 박근혜 《정권》이 될것이며 그로 하여 민족에게 차려질것은 핵전쟁의 참화밖에 없다.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남조선의 초불민심이 《안보》를 팔아 권력을 잡아보려는 박근혜부역자들을 이번 기회에 쓸어버리려고 하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본사기자 김응철

# 어리석고 무모한 대결망동으로 차례질것은 개죽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이 대변인담화를 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정책국은 27일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였다.

대변인담화는 다음과 같다. 최근 피뢰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 역도가 분별을 잃고 극도의 대결광기를 부러내고있다.

며칠전 역도는 당장 목이 나떨어지게 된 주제에 《국무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북이 인민군창건일예 조음하여 6차핵실험 등 다양한 도발을 감행할수 있다.》느니, 《북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력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것》이라느니, 《철통같은 군사적대비태세를 유지하라.》느니 뭐니 하는 반공화국대결나발을 불어대면서 비런칭을 두구었다.

그런가하면 《북의 도발에 대해 미국과 기밀하게 협의하고있다.》느니, 《주변국과의 외교적노력을 통해 북핵문제의 근본적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해나갈것》이라느니 하는 회떠운 수작도 늘어놓았다.

병신 룡갑한다고 26일에는 우리 인민군대의 군중합동라격시위에 질겁하여 미국과 피뢰호전광들이 부랴부랴 벌려놓은 그 무슨 《2017 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데 낱짜를 드러내고 줄개를 내세워 《위용과시》니, 《강력한 응징, 격멸능력을 시험했다.》느니 하며 허세를 부러졌다.

그야말로 삶은 소대거리도 폭소를 터칠 팔삭둥이의 해괴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상전인 미국마저도 급속히 고도화되는 우리의 핵공격능력에 혼비백산하여 자기의 전략자산을 다 들이밀며 허둥대지 않으면 안되는 가련한 처지에 빠졌이는 때에 한강 피뢰들따위가 《응징》이니 뭐니 하며 졸망스럽게 들까붙어대는것은 참으로 가스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기관은 겹기가 많은자일수록 위세를 부린다고 담도 없는 황교안 역도가 제법 일을 칠것처럼 알팍한 허바닥을 마구 눌러대는것이다.

군대물도 먹어보지 못하고 군사역의 《군》자도 모르는 무지한 놈이 입만 벌리면 그 무슨 《강력한 응징》이니, 《대비태세》니 하고 주절대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송장 파먹은 까옥소리뿐이라고 몸통아리에 동족에 대한 적대감과 대결양심이 구정물처럼 짝 들어찬 역도의 주둥이에서 솟음이 끊어질 시각이 닥쳐왔다고 하여 다른 소리가 나올리만무하다.

황교안역도로 말하면 청와대악녀 박근혜의 집권기간 피뢰범무부장관, 《국무총리》자리를 타고앉아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리석기내란음모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들을 련이어 조작하면서 역도년의 반공화국대결정책실현의 돌격대가 되어 미처나뉘던 국우악질보수분자이다.

천하역적 박근혜년이 청와대에서 쫓겨난 다음 《대통령권한대행》갑투를 뒤집어쓰자 《북이 탄핵위기를 틈타 도발할수 있다.》느니, 《즉각 대응태세유지》니 하며 입에 게거품을 물고 악담을 토해낸 대결광신자가 바로 황교안역도이다.

4월에 들어와서만도 며칠이 멀다하게 줄개들을 모아놓고 《핵시험 등 북의 추가도발가능성이 농후하다.》느니, 《북이 전략적선택법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게 하겠다.》느니 하는 망발을 그칠새없이 늘어놓으며 극도의 안보위기를 고취해대고있다.

황교안은 극악무도한 망발을 뱌 쳐대는것으로써 미국의 폭두각시, 대결에 광분해온 박근혜년의 수구잔당으로서의 추악한 물골을 다시

금 날날이 드러냈다.

피뢰들이 지금 입만 벌리면 낫뜨거울줄 모르고 《한미동맹》이니, 《긴밀한 협의》니 하고 떠들어대고있지만 군사주권도 없는 한강 미국의 전쟁노예, 하수인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최근 미국이 조선반도문제를 놓고 주변국들과 모의관을 벌리면서 유독 피뢰들만 속 빼놓은것은 주구의 가련한 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황교안역도가 《북의 추가도발》이니 뭐니 하면서 대결광기를 부리고있는것은 날로 고립배격당하고있는 피뢰보수잔당들의 불안감의 발로이며 《대선》을 앞두고 안보위기를 더욱 고취하여 보수세력을 규합해보려는 흉악한 기도에서 출발한것이다.

역도야말로 기생오라비상통그대로 미국상전과 보수패당의 밀셋개노릇밖에 더 할것이 없는 인간주물이다.

마가울의 가랑잎신세가 된 황교안역도가 아무리 피대를 두구며 대결타령을 늘어놓아도 그것은 공포에 질린자의 아부제기에 불과하며 그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만일 피뢰들이 등뼈 부러진 승냥이신세가 된 미국상전을 믿고 감히 무분별한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인민군대의 무자비한 멸적의 불소나기속에서 시체는 고사하고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될것이다.

어리석고 무모한 대결망동으로 차례질것은 처참한 개죽음뿐이라는것을 역도는 푹바로 알아야 한다.

황교안은 말로가 더 비참해지지 않고박근혜년과 함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 평화안보행동이 국민행동이 된다

그러나 대선후보들과 주요정당들은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자 《평화》대신 《안》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남조선인민들이 초불시위투쟁의 연장선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리고있다.

계속하여 그들은 《《중북몰이》에 근거한 대북적대와 전쟁불사정책, 이에 근거한 개성공단폐쇄와 군사적긴장고조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적

행태이다. 그러나 대선후보들과 주요정당들은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자 《평화》대신 《안》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남조선인민들이 초불시위투쟁의 연장선에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개선과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리고있다.

이보다 앞서 19일에는 4월혁명회, 민주로총, 진보련대 등 민족민주운동단체들이 4.19인민봉기 57주년을 맞으며 《4월혁명 57주년 민족민주운동단체 합동참배식》을 갖고 《조물정신으로 자주, 민주, 통일》의 국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 단체들은 《《한》반도평화와 국민주권을 짓밟는 《싸드》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리명박근혜 《정권》이 폐쇄시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길도 다시 열어 전쟁을 방지하고 이 땅에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넘쳐나도록 해야 할것이다.》고 하면서 보일뿐 초불의 요구, 민심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24일 전주에서도 전라북도지역 각계층 1만 2 105명이 서명한 《《한》반도 평화실현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평화선언》이 발표되었다. 행사를 주최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라북도본부

는 선민들과 온 민족앞에 저지른 만고죄악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가관은 아직도 탄핵은 억울하다며 역도년을 두둔해나서고있는 《자유한국당》후보 홍준표를 비롯한 보수멸거지들의 가련한 추태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 조선의 인권현실을 두려워하는 미국

로씨야의 정계인사가 인터넷홈페이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현실을 두려워하고있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글은 미국이 거둬드는 《북인권》소동에 한사코 매여달리고있는데 대해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고있으며 자신들의 명예와 존엄뿐만이 아닌 후대들의 미래에 대하여서도 확신하고있다.

조선은 세계가 혼란과 모순에 허덕이고있는 오늘날 사람들모두가 평화롭게 살고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이다.

당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인민들의 복리향상에로 지향되는 조선과 같은 나라가 존재하고있는 현실을 미국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있다.

범죄자들, 압제자들이 된 연제나 가장 밝고 정당한 모든것을 없애버리고 책동하기때문에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조선에서의 《인권침해》에 관한 그 무슨 《보고서》를 보느라면 어처구니가 없을뿐더러 증오만 야기시킨다.

《보고서》라는것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는 허위증언들에 기초한것으로 하여 미국의 대변자들이 고안해낸 《작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안겨온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류혈을 인권과 자유에 대한 특수한 개념으로 삼고있는 죽음의 제국으로서 끊임없는 류혈로 생존해오고있다.

암흑은 평평을 압도할수 없다. 조선의 정치가 도덕적이며 정의롭고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

되어있기때문에 바로 미국은 조선을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미국력사는 인간살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식민주의》와 《미국식인권》이 오늘날 세계에서 정치적혼란과 전쟁을 야기시키는 근원이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조선과 세계에 강요하려 하고있다.

조선과 비교해 볼 때 미국은 명도만 클뿐 보잘것없는 나라이다. 조선에는 실업자도 문맹자도 없으며 인민들은 무료로교육, 무상치료를 받으며 살림집도 무상으로 배정받는 등 절대적인 혜택을 보장받고있다.

오늘날 조선은 당당한 핵 및 우주강국으로 되였으며 더우기 이 모든것을 자체의 자원과 수단으로 이룩하고있다.

본사기자

박근혜의 구속과 관련하여 남조선인민들이 《죄박두해울수록 벌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며 잔명부지에 급급해하고있다. 박근혜는 고용변호인들을 내세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한중도 못되는 보수멸거지들을 부추겨 련일 석방소동을 벌리게 하여 서울장안을 불망나니들의 란무장으로 되게 하고있다.

그런가하면 전직고위법관들로 변호인단을 재구성한다 어쩌다 하면서 그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고 27년간이나 애용해오던 삼성동집까지 팔면서 모지름을 쓰고있다.

21일에는 18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내대며 법원이 5월 2일로 정한 재판일을 연기해줄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라는것을 제출하는 등 시간끌기에 매달리면서 교활하게 놀아대고있다.

이로써 박근혜역도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 한사코 도전하려는 악마의 속심을 또다시 드러냈다. 남조선정치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쓰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의 가련한 운명은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과 파썬정치, 부정패를 일삼아온 회세의 역적, 천하악녀에 대한 력사와 민심의 엄정한 단죄이며 준엄한 심판이다.

본사기자

## 조선반도평화실현과 남북관계개선을 주장

남조선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가 24일 전주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내 1만 2 105명의 각계층 주민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실현과 남북관계개선을 요구하여 서명한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이번 《대통령》선거는 초물정신을 받들어 악폐청산과 새 사회건설을 위한 전환점이 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반도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해서는 7.4남북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들의 계승과 리행,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 즉각재개, 《싸드》배치중단과 평화협정체결, 보안법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선언문을 강조했다.

선언문은 악폐의 뿌리는 분렬이라고 하면서 온

갖 부정부패를 저질러온 세력들이 다시 기여나와 《색갈론》을 조장하고 《선제공격》 등 위협천만한 전쟁불사전략까지 공공연히 뽐내대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모든 정당들과 《대통령》선거후보들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실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선언문을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 아무리 발버둥질해 봐야...

얼마전에 흥준표는 어느 한 모임에서 박근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대해 《정치투쟁에서 진것으로서 공정한 재판을 하면 무죄》라고 력설하였다.

이것이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은 박근혜역도를 살리고 우익보수세력을 규합하여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비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남조선의 력대통치배들치고 최악의 행적을 남기지 않은자가 없지만 박근혜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자는 일찌기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옹고집을 부리며 잔꾀를 부리는 박근혜의 꼬락서니는 그야말로 미친개도 죽을 때는 통을 싸갈고 죽는다는 격언을 방불케 하고있다.

구린내나는 등지를 팔아치우고 재판기일을 연장하며 변호사나부랭이나 바꾼다고 하여 남조선인

## 남조선의 초물정신은 이미 박근혜뿐 아니라 보수패당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었다.

박근혜의 집권 4년을 통하여 온갖 불행과 고통의 쓴맛을 다 본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보수세력의 재집권은 절대로 허용할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박근혜는 물론 극악한 공범자무리인 보수패당들을 철저히 청산하고 매장하여야 한다는것이 력사의 경종이며 민심의 환결 같은 요구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 《싸드》의 희생물로 된 남조선인민들

지난 26일 미국과 남조선의 친미골종세력은 말쑥한 《싸드》를 성주에 기습 배치하는 망동을 부리었다.

내외 호전세력은 이날 새벽 경찰의 삼엄한 호위경계속에 도착고양이마냥 《싸드》의 관련장비들을 성주군 룩데골프장에 불법 반입하였다.

이 과정에 현지 주민들과의 충돌이 벌어지고 여러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얼 마 전 까지만 해도 미국은 남조선인민들의 《싸드》 반대투쟁과 주변 나라들의 반발을 녹닫기 위해 《싸드》 배치가 완료되면 몇 주 또는 몇 달이 더 걸릴 수 있다. 《그것은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니 뭐니 하며 너스레를 떨 어왔다.

그러던 미국이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앞둔 시점에서 불의적으로 《싸드》를 불법배치한 것

은 남조선의 다음 《정권》에 가서도 《싸드》 배치될 뉘 돌리실 수 없게 해보려는 간악한 흥계의 발로이다.

이미 많은 군사전문가들이 평하였듯이 《싸드》는 남조선의 《안보》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한갓 무용지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을 위한 《싸드》이지 남조선인민들을 위한 《싸드》가 아니다.

오리터 반경이 2000km에 달하는 《싸드》의 레이더 감시범위로 하여 주변 나라들의 경계와 반발을 사고 남조선이 주변국들의 힘의 대결장으로 화하여 언제 날아올지 모를 국제불명의 핵탄의 과녁이 되게 되었다.

이런 위협천만한 《싸드》를 미국을 위해 서슴없이 남조선에 반입하기로 하여 온 남녘겨레의 중오를 받은 박근혜역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선거 경쟁이 벌어지는 혼란된 틈을 타서 《싸드》를 끝내 성주에 배치하였으니 미국이야말로 저들의 침략적 목적을 위해서는 남조선인민들을 군사적대결과 전쟁의 참혹한 희생물로 삼는 것도 서슴지 않는 악의 제국이다. 이런 미국과 야합하여 《싸드》라는 전쟁 피물을 불법반입한 남조선 보수당국은 친미골종에 환장하여 남조선에 온갖 재난을 불러오는 사대매국노들이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미국과 보수패당의 불법적인 《싸드》배치행위에 분노해하면서 투쟁에 열기해나서고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비상국민행동과 《싸드》 남조선배치저지국민행동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과 보수패당의 불법적인 《싸드》배치행위를 준렬히 성토했다. 그들은 《이미 국민들이 파멸한 (정부)가 전쟁위기를 부르고 평화를 파괴하는 장비를 배치했다.》, 《박근혜적폐, 안보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국민들과 함께 나설것임을 선언한다.》, 《《싸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나 환경영향평가와 모든 법적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다.》, 《불법반입한 《싸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고 하면서 투쟁열기를 고조시키고있다.

《싸드》를 불법배치한 미국과 남조선보수당국의 망동은 두고두고 용서받을 수 없다. 이제 그로 인한 엄청난 피해는 고스란히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게 되었다.

온 겨레와 세인은 《싸드》배비놓음을 통해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긴장격화와 전쟁을 불러오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를 똑똑히 가려보고있다.

## 기록 영화가 보여주는 것은...

남조선에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과정을 다룬 기록영화 《더 플랜》이 사람들속에서 큰 관심을 끌고있다.

이 영화는 남조선의 1만 3 500여개 투표소에 251개 개표소로 이동한 투표함 등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당일 남긴 모든 기록을 조사한데 기초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자료수집에 2년, 수사분석에 2년 총 4년에 걸쳐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자동개표기를 리용한 개표는 해킹프로그램을 통해 언제든지 개표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로써 18대 《대선》을 통해 《대통령》 자리에 틀고앉은 박근혜는 정보원을 비롯한 특정세력들이 개표조작을 통해 내세운 불법 《대통령》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런것으로 하여 영화를 관람한 많은 사람들은 2012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당선인 유력했던 야당인물이 왜 패했고 방송사에서 선거당일 개표가 끝나려면 한참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당선》을 서둘러 확정했는지 이제야 그 의문들을 풀린다고 하면서 보수세력들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따지고보면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2012년 《대선》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만들어내기 위해 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와 같은 관권을 총동원하여 야당세력들과 야당후보들에 대한 허위사실과 비방선전을 대대적으로 벌리는 한편 박근혜를 비호두둔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대대적으로 감행하였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개표조작이라는 더러운 수단까지 발동하여 민주사회를 갈망하는 민심의 요구를 짓밟고 《유신》 독재자 후예의 《당선》을 조작하였다. 이로써 남조선에는 최악의 부패무능 《정권》이 등장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 몰락이라는 전대미문의 추문사태를 낳게 하였다.

폭로된 내용은 이것만이 아니다. 리명박 《정부》 시기 청와대와 정보원이 《알파팀》이라는 조직까지 만들어놓고 돈

을 쥐어주며 진보개혁세력과 야당인물들을 헐뜯고 저들의 반인민적정책을 비호하는 각종 여론전을 인터넷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린 내막도 드러났다.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박근혜 《정권》 역시 《어버이런합》, 《박사모》와 같은 극우보수단체들을 내세워 《세월》호 침몰사태때 보여준것처럼 초불민심을 비방하고 우롱하는 각종 시위들을 대대적으로 벌리게 하였다.

리명박과 박근혜 《정권》 시기 정보원이 감행한 모략사건들은 그 무엇보다도 용납될수 없는 정치협잡행위, 특대형범죄로서 보수세력들이 권력탈취와 집권안보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파쇼무리한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박근혜 《정권》의 종말과 함께 지금 과멸의 위기에 몰린 보수세력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떻게 하나 권력을 다시 쥐여보겠다고 진보민주세력들에 대한 악랄한 《종북》소동과 비방증상에

매달리고있다. 허위와 날조에 이끌린 난 부패보수세력들이 이번에도 18대 《대선》 때처럼 선거결과를 뒤집기 위해 어떤 비렬한 수를 또 쓸지 알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악정에 분노해하는 남조선인민들은 각성되고 단합된 힘으로 보수패당을 영영 매장해치우고 진보와 발전의 새 지평을 열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 철

## 미군과 남조선호전광들 해상에서 북침전쟁연습에 광분

남조선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미군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25일부터 조선반도주변수역에서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연합해상훈련을 시작하였다.

미제침략군 《갈빈슨》 호해항공모함타격단소속 이지스구축함 《마이어》호가 조선서해로 기동하여 남조선해군의 구축함과 함께 전술기동과 함포사격을 동반한 실탄사격

훈련을 벌리며 화약내를 풍기고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부산항에 기어든 타격단소속 핵잠수함 《미시간》호가 북측 수상목표에 대한 타격훈련을 단독으로 감행하려 하고있다.

타격단의 핵항공모함 《갈빈슨》 호와 유도탄순양함 《레이크 챔플레인》 호, 이지스구축함 《마이클 머피》 호는 26일과 27일사이에 조선동해에 기어들어

피뢰해군과 기동훈련, 미싸일탐지, 추적, 요격 등의 《고강도연합훈련》을 벌릴것이라 한다.

조선반도주변에 전략타격수단들을 줄줄이 들이밀며 부질없이 날뛰는 미제의 망동은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미행정부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이 가장 호전적이며 무모한 침략정책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 다시 찾아온 경천사 흰대리석탑 (4)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처음 찾아왔을 때 너무도 몸이 어윈데다가 지지리 고생속에 졸도하여 키도 제대로 크지 못한 억기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리상재였다. 하긴 억기의 그 모습이자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불쌍한 우리 조선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리상재는 억기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나서 뒤에 서 있는 한영서원의 학생들에게도 나직이 말하였다.

《우리 집이 군들이 들어있는 친척집에 비하겠소만 오늘은 억기와 함께 들어가자.》

리상재는 두팔을 벌려 억기와 학생들을 옆에 끼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억기는 저녁상을 물리자 리상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오늘 일은...》

리상재는 고개를 끄덕이고나서 억기쪽으로 숯불이 맞춘 화로를 밀어놓아주었다.

하긴 억기의 등이 달만도 하였다. 그간 한양에 묵는지도 몇달이 지났건만 언제 한번 시원한 소리를 못해준 리상재였다. 오늘도 억기에게 꼭 집심전으로 돌아오마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한것은 뜻밖에도 폐간된 《황성신문》의 사장이였던 장지연을 만나 늦어진 때문이었다.

그동안 리상재는 경천사석탑을 찾기 위한 운동을 주도세밀하게 벌려왔다. 이전 《독립협회》성원들은 물론 망국전에 의정부에서 벼슬을 산 옛 친구들까지 이 일에 입시하였다. 특히 1905년 11월 20일 《시일야방성대곡》(이날에 소리내어 크게 통곡)하여 전국민에게 충고하노라 라는 문설을 써낸 《황성신문》 문설사건으로 왜놈들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후 로씨야 연해주로 망명하였다가 몇해전에 귀국한 장지연과의 사업은 보다 큰 수

확이 있었다.

여러해동안 왜놈들을 피해 마산에 내려가있던 장지연은 제자들을 만나려 얼마전부터 한양에 올라와있었다.

하여 리상재는 장지연과도 손을 잡을수 있었다. 장지연은 지금껏 도처에서 왕릉이며 성문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문화재를 약탈하는 왜놈들을 제지시키지 못하는것은 소극적으로 분산되어 싸우는데 있다고 하면서 여기서 교훈을 찾고 경천사석탑 사건을 조선독립을 위한 싸움의 도화선으로 만들자고 하였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자면 간악한 왜놈 《총독부》도 꼼짝할수 없도록 물질적증거를 빈틈없이 켜 다 음 온 한양시민들을 총열기시켜야 한다는 장지연의 주장은 리상재의 생각과도 일치하였다.

장지연은 왜놈들의 무지막직한 무단통치하에서 조선의 신문사들이 모두

왜놈들속에서 금제안정을 긴 난쟁이 왜놈이 시내의 남본정에 거처지를 정하고있는 나까다눔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인하고 인차놈의 사진을 찍어보내겠다고 알려졌다.

인천으로 내려간 여러 기자들도 왜놈들이 10여대의 마차에 실고 온 하얀 대리석돌같은것들을 일본으로 가는 배에 실었다는것을 부두로동자들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준 이전 기자들과 손을 잡고 일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갔다.

성과는 눈이 뜨이게 알려졌다. 송도에 간 황성신문사의 이전 기자는 한영서원과 함께 개성일대의 왕릉, 고분들을 도적강요이마냥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며 도굴하는

쁘게 장지연이 보낸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장지연을 찾아가보니 그는 도둑에서 자기의 친구가 보낸 편지를 방금 받아보았다면서 그것을 내보이는것이였다.

편지를 읽어본 리상재는 분기를 참을수 없었다. 세상에 왜오랑개들처럼 뻥뻥스럽고 철면피한것들도 많지 못할것이었다. 시퍼런 대낮에 조선에서 훔쳐간 경천사석탑을 도둑의 어느 공원에 버짓이 세워놓은 왜것들이 그 석탑을 가리켜 원나라가 고려에 세워준 탑으로서 저희네가 옛적에 조선에서 사 온것이라고 하면서 짐승도 불힐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고있다는것이였다.

천하에 조폭하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왜것들만이 떠벌여낼수 있는 수작이 아닐수 없었다.

...조선의 전통적인 석탑형식을 보면 석재는 흔히 화강석을 쓴다. 탑몸은 대개 4각 아니면 8각이고 그 형태는 소박하고 단출한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원나라 귀족들이 고려에 세워준 경천사석탑은 조선의 전통적인 석탑과 달리 흰대리석으로 만든데다가 1층기단에서부터 3층탑몸까지의 12각으로 되어있다. 화려하고 섬

세하며 정교하게 깎은 이런 류형의 석탑은 철저히 원나라식이거나 조선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고급한 석탑을 자기들의 손으로 세울 능력이 없다. ...

아, 세상에 날도적이도려여 매를 든다더니 거의 천년가까이 이 땅에 서있는 국보급석탑을 백주에 달려들어 사람까지 묶어놓고 훔쳐간 왜오랑개들이 엄청난 억지케번으로 세상을 우롱한단말인가!

이것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인것은 말할것도 없으며 조선사람의 모든 우수성을 깡그리 말살하여 제놈들의 식민지속화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한 왜오랑개들의 흉악한 음모였다.

《위암(장지연의 호)! 이놈들을 도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리상재가 울분을 터뜨렸다.

《월남(리상재의 호)선생님! 송도총각을 데려두길 아주 잘하였습니다. 지금은 경천사석탑의 래력을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다가 또 그 탑을 사진찍어 공개한것도 없으니 이제는 큰똥이 거기나 억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